

# 넷플릭스,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못한다

### 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자진시정하기로

### 고객에 과도한 책임 부여 조항 개선...넷플릭스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제재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오는 20일부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넷플릭스의 약관 조항은 6가지다.

먼저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넷플릭스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넷플릭스 요금제는 화절과 동시

이용 인원에 따라 베이식(월 9500원), 스탠다드(1만2000원), 프리미엄(월 1만4500원)으로 나뉘는데, 기존 약관 조항은 넷플릭스가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해 다음 결제일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요금이나 멤버십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계정 해킹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된다.

현행 약관 조항은 넷플릭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의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회원이 계정을 사

용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넷플릭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조항도 약관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넷플릭스의 책임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 권한도 없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행위로 약관 조항에 명시하도록 했다.

넷플릭스가 언제든지 회원과의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은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된다.

특정 약관 조항이 불법이거나 시행 불가능할 경우에도 나머지 조



항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이에 삭제된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넷플릭스 약관 조항에 대해 경쟁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린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정된 약관 조항을 적용한다. 단 수정 약관조항은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OTT 업계의 약관 조항은 아직까지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뉴스1

## 지난해 고용률 60% 역대 최고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51만 6000명 늘어나면서 연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 목표치를 훨씬 웃돈 30만명을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고용지표 개선을 두고 정부는 지난해를 '일자리의 해'로 평가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1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 31만6000명에서 2018년 9만7000명으로 축소됐지만 2년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생산가능연령 인구(15~64세)가 321만1000명 감소했지만 해당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는 20만8000명 늘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목표를 28만명으로 설정했지만 12월 취업자 수가 2014년 8월(67만명) 이후 최대 수준인 51만6000명 증가하면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다.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고용률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1997년(60.9%)과 동일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6.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연간 실업자 수는 지난해 106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8%였으며 청년실업률은 8.9%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연령별·산업별 고용 상황을 보면 개선된 고용지표는 고령층 취업자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 GTX 금정역에 1만여㎡ 인공대지 조성... '환승센터 복합시설' 개발

### 환승센터 입체화 계획

경기 군포시가 도시의 교통 관문인 금정역 일원 도로(금정역 삼거리~신분시장 사거리 방면) 지상에 1만여㎡ 이상의 인공대지를 조성해 대중교통 연계형 환승센터 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한대희 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환승센터 입체화

개발 추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금정역 정거장이 지하화 건설이 아닌 기존 지상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당초 역사 중심으로 계획한 환승센터 개발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데 따른 대체 전략이다.

현재 금정역에는 전철 1·4호선, 국철 등 3개 노선이 설치되어 하루 철도 운행 시간이 하루 약 20시간에 달한다. 결국 선로 내 환승센터 공사 시 실제 공사 시간은 새벽 시간대(3시간 안팎)로 한정돼 비용 증가 등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기존 역사 중심의 환승센터 건설 계획은 열차의 안전 운행, 여유선로 부족, 대체 선로 개설

을 위한 부지확보 불가 등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열차의 전도 방지를 위해 선로 하부 지표면을 견어내 공사를 진행

뉴스1

## BTS월드투어 수입, 韓 GDP에 반영될까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핵심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교육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경제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했다. 개그맨 서경석씨가 BTS의 월드투어 공연을 소재로 GDP와 국제수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한화생명, AI가 보험금 지급 심사...보험금 더 빨리 받는다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AI(인공지능)가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심사하는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AI를 활용해 보험금을 심사하는 보험사는 있었지만 실시간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도입한 건 한화생명이 처음이다.

한화생명은 클라우드를 자사 전산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설계를 추진해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췄다. 다른 금융사는 내부 전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을 통해 스스로 보험금 지급 결정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 지급,

불가, 조사 등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시스템은 한화생명의 과거 3년간 1100만건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활용해 총 3만5000번의 학습과정을 거쳤다.

한화생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 건의 절반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게 목표다. 현재 자동 심사율은 약 25%다. 자동심사율이

높아지면 고객의 경우 보험금 청구 후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기존 심사 인력은 난이도가 높은 심사에 집중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5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 도입은 한화생명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보험코어 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보험코어 시스템 구축은 2022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